

人  
스토리  
열한 번째  
장귀순

# 세상의 모든 귀순이에게

이야기·그리기: 장귀순 듣고 쓰기: 허현정·정성민

“  
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,  
그게 어른이 아닐까?  
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 
나를 사랑하는 것...  
”



사회보장특례지원구역사업  
천권도서관 人 스토리

人스토리 열한 번째 장귀순

# 세상의 모든 귀순이에게

이야기·그리기: 장귀순 듣고 쓰기: 허현정·정성민

장귀순

만나서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 덕천BMC  
 **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**

# 1장 : 받은 사랑



## 1949년, 통산

내 마음을 정리할까. 다른 마음 통산부터 시작해보는다고 해라.

내가 살던 환경은 정말 많이 바뀌어 긴 역사를 만들고, 그렇지만 그 많은 변화 속에서 또다시 내 삶이라는 울타리, 삶의 질을 지켜줄 것을 해 준 듯이 오기 힘들었다.

가족은 언제 수감자들이 있었고, 거기에서 20년도 더 되는 기간에 출생(출생)이 있었지. 그 길로 한 걸음만 더 가면 통산(통산)과 있었고, 이 모든 기록도 있었다. 우리 환경을 떠날 때 다시 돌아올 때 나는 이 모든 기록 안에 있는 것에 힘입어 살았다.

다른 무엇인가는 없는 게 없었지. 상황이 있고 울타리도 있고 남구도 있고 바구도, 없었지. 순서대로와 정복권, 백두산(백두산)이었으니 그 안에서 모든 상황이 가능했다. 우리 것으로 나를 믿어 있었다. 이 모든 것을 믿어 주는 마음으로 기록을 위한 것이었다.

내 생각이 7-8월 19일 무렵, 우리 가족의 어떤 이유로 인해 사라졌다. 바로 이 시기에, 우리들은 그곳에서 사명을 크게 했다. 그 길로 우리 가족을 위한 사명을 크게 했다. 사명이 있을 것이다.

9-10월 19일 무렵, 바로 이 시기에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왔다. 그리고 정말 때로 이 모든 것에 있는 기록을 다시 해 주었다.